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정문화분과위원회」 회의록

2026. 7. 7.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정문화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6. 7. 7.(화) 10:00 ~ 11:40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12층 소회의실 2

◆ 참석위원 : 12명 ※ 재적위원 16명

- **서**○○ 위원장, **이**○○ 부위원장, **김**○○, **강**○○, **박**○○, **박**○○, **이**○○, **추**○○, **김**○○, **박**○○, **이**○○, **최**○○ 위원

※ 배석 : 부산진구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계장 **고**○○

◆ 진행순서 : 참석위원 소개 → 성원 보고 → 위원장 인사 말씀 → 안건 심의 → 폐회

◆ 상정안건

- 시정참여형 3건(잔디광장 체육과장 조성 사업 등 3)
- 지역참여형 7건(도서관에 일자리 게시판 만들기 등 7)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원안 가결 5**(지역참여형 5), **수정 가결 5**(시정참여형 3, 지역참여형 2)

□ 위원 발언 내용

<서○○ 위원장>

○ 물론 소관 부서에서 일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나와 주신 위원님들도 다 일정이 있으신데 맞춰서 오신 거임. **직접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사업이 왜 필요한지 직접 말씀하시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설득이 될 텐데 아쉬운 부분이 큼**. 수정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함. 이 사업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짐.

<이○○ 부위원장>

○ **(219, 잔디광장 체육광장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음.

○ **(381, 도서관에 일자리 게시판 만들기)** 기존 온라인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랑 차별점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워크넷에 있는 채용 공고를 키오스크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같음. 추가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나 창업 관련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상 이용 대상에 보면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상하기로는 청년들은 키오스크로 굳이 볼 것 같지는 않음. 그렇다면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장애인들인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면은 높이를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음**. 그리고 고령층이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데, **키오스크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 관련 안내문 등을 자세히 게시**하면 좋을 거 같음. 자원봉사자 또는 직원 근처에 두면 직원들이 순간순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치도 고려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

○ **(651,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산시 주민참여 예산인데 물론 좋은 사업도 많지만 그게 한 구에 너무 집중돼 버리면 다른 구가 상대적으로 못 받음. 주민참여 예산 사업 자체가 예산이 크지가 않음. 특정 사업에 이렇게 몰리는 거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 취지에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듦.**

○ **(908, 태블릿, 노트북 대여사업)** 영상 편집 같은 경우 중상위권은 거의 다 필요하면 노트북이나 태블릿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함. 하지만 **차상위 계층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대여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물론 관리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어렵겠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을 것이라 생각함.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음**.

<강○○ 위원>

○ **(807, 모두의 도서관, 생애맞춤 북스타트)**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자택으로 택배를 받는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 것 같고, 택배로 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신청한 곳에 가서 받을 수 있다면 **선별적으로 택배 받는 사람한테는 택배로 보내주고,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주면 된다고 생각함**. 이 사업에서 책은 소유의 개념이다 보니까 책에 낙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은 공공의 책이기 때문에 반납 기한이 있고, 낙서를 못하지만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 한국어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든지 한국어 문화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소유해서 충분히 활용하면 효용성이 있어 보임.** 또한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도 책을 찢거나 함부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관련된 복지시설에 신청해서 택배로 받거나 지원받으면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879, 동네체육시설 보수)** 동네 체육시설을 안전 측면에서 보수하거나 새로 교체하는 건 좋은 것 같음. 다만, 위치가 관내 56개소 중 54개소가 해당, 예산은 4백만원, 10대 기구 교체로 되어 있음. 54개소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험하거나 필요한지, 이용객이 많거나 해서 **사업 위치를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현장 확인도 가능하고, 진짜 교체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대략적이라 검토하기가 애매함**.

<박○○ 위원>

○ **(807, 모두의 도서관, 생애맞춤 북스타트)** 저소득층의 경우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문화누리 카드를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음.** 인터넷 또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으로 보임**.

<이○○ 위원>

○ **(651,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중구청 복합센터랑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공청사 건립은 원래 주민 제안 사업의 부적정으로 이미 있는 기준**인데, 애초에 이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게 맞는지 의견이 있음. 아무래도 **부적정이 맞지 않을까 싶음**.

○ **(912, 동래 고(古)읍성 보존유적지 어울길 정비)** 6월 23일에 주무관님이랑 같이 현장을 다녀옴. 지금 원래 있던 읍성 벽터에 덧댄 자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균열이 간 상태이고, 특히 이제 벽돌 등이 탈락한 부분이 많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듦. 결과적으로는 유지 보수가 잘 안되고, 누수와 빈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 미관 개선 차원의 보수보다는 균열 원인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함**.

<추○○ 위원>

○ **(887, 시싯골어울행복마을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설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음**. 주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 같음.

○ **(908, 태블릿, 노트북 대여사업)** 도서관을 가끔 이용하는데 아직 대여사업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음.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들이라든지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음**.

○ **(912, 동래 고(古)읍성 보존유적지 어울길 정비)**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4, 5년 채 되지 않아서 전면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이 5,500만원으로 하면은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너무 주기가 짧은 것 같은데, 지금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만족스럽게 되지 않을 것 같음**.

<김○○ 위원>

○ **(887, 시싯골어울행복마을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설치)** 실제로 저는 북구에 살고 있고, 북구에 여러 시설이 너무 좋은데 **대기 기간이 길어서 강서구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포화 상태**임. 스크린 골프를 하는 이유는 필드에 나가기 전에 자세를 교정하기 위함임. 다치지 않게 바른 자세로 운동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수강해서 기회가 되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음. 실제로 운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쪽에 집중이 됨. **다른 구에 보면 요금이 있던데, 무료인지?**

○ **(807, 모두의 도서관, 생애맞춤 북스타트)** 장애, 저소득층 자녀, 노인, 이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구입을 해도 잘 읽어지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책을 줬을 때, 과연 이 책이 활용될지 의문임. 도서관과 복지시설과 연계 협력해서 추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서관과 복지시설을 연계해서 추진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책을 구입해서 택배로 제공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과 복지시설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뭔가 더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이 책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함**. 이 책을 읽고 활동을 하거나, 상품을 주거나 피드백이 있어야 연계가 되어서 가능한 것임. 아마 기관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세부 내용이 없어서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음. 또한, **재료비도 있는데,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보통 복지관에서 복지사 선생님들이 꾸러미를 싸서 후원 물품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에 가져다드림. 그래서 **왜 택배비가 드는지 모르겠음**.

○ **(908, 태블릿, 노트북 대여사업)**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두면 분실되고 해서 집에 가지고 옴. 사실 전자기기는 사용하고 떨어뜨리면 당장

표시가 안 남. 근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잘 관리되지 않고 반납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도가 느려지는 등 여러 가지 구입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듦. 그리고 **대여하면 주의사항 등 라벨지를 붙였을 때 과연 아이들이 대여한 태블릿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도서관에 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PC방 가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고,** 지금 AI 때문에 부품값이 엄청 비쌈. 기기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으로 얼마나 좋은 사양일지도 의문**이 있음. **실제 운영 사례나 성공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담당자가 오셨으면 그런 데이터가 있고,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듣고 더 많이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임.

○ **(954, 구덕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 다른 분한테 듣기로는 어차피 공사를 할 거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현장에서 다른 위원님이 어차피 다른 공사를 한다고 들었음.**

<박○○ 위원>

○ **(879, 동네체육시설 보수)** 사진을 보면 나무 벤치 이런 것도 많이 노후화되어 보임. **운동 기구만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 공공시설물도 같이 정비를 하는 건지** 궁금함.

○ **(908, 태블릿, 노트북 대여사업)**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컴퓨터는 있을 것 같음.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도서관에 비치 해두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쓰면 관리적인 측면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데 **집에 가져가서 써야 한다는 점이 우려**됨. **반납기에 그냥 넣고 가**

버리면 대여한 사람은 끝인데, 관리가 되지 않을 게 너무 뻔함. 차라리 대형 반납기를 하지 말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개수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으며**, 사진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함.** 또한,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건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PC방 등 인프라가 좋은 환경인데 이걸 굳이 **대여를 해서 집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음**. 왜냐하면 그 반대 급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이 더 많다고 보임. 또한, **반납기가 너무 비싼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도서관 사서가 반납을 받는 방식으로 하면 작동이 되는지 한 번 켜볼 수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 같음**.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반납기 부분은 추후에 활성화가 됐을 때, 반납기가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이 시작부터 기기보다 더 비싼 반납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견임.**

<이○○ 위원>

○ **(651,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구덕운동장 현장 확인 갔을 때 그 옆에 서구 국민체육센터가 있었음. 시설이 금이 가고, 그 사이에서 물이 새 나오고 있었음. **기존에 있는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음**.

○ **(908, 태블릿, 노트북 대여사업)**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PC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보급하는 게 있음. 구마다 다르기는 하나 **차후 관리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음.** 연제구 도서관 같은 경우는 PC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실이 좀 잘 되어 있어, 필요할 때는 거기 가서 PC를 사용하고 함. 사실 원도심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위치를 보면 강서 기적의 도서관임. 그 지역은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은 곳으로 알고 있음. 동구나 영도구 이런 원도심은

이해가 가는데, 강서 기적의 도서관 위치상 봤을 때, 다른 거보다 **대여 반납기가 너무 비쌈.**

○ **(912, 동래 고(古)읍성 보존유적지 어울길 정비)** 현장에 갔을 때 통행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았고, 차량도 많았음. **균열도 심하고 이게 덧대다 보니 틈이 많이 벌어졌음.** 그리고 그 앞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또 있음. 그래서 **안전상 위험성이 높아 보여서 보고서에도 그 내용을 넣었음.**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벽은 수영구에서 관리를 함.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주민분들이 너무 많이 다님.

○ **(807, 모두의 도서관, 생애맞춤 북스타트)** 북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 몇 군데 구에서 하던데, 연제구에서는 북스타트 사업이 없음. 구마다 편차가 있는데, 시민 도서관이나 구포도서관에 신청해서 생애 주기별로 추천된 책을 받아 가정에서 읽는 방식임. 근데 여기에 **택배비가 왜 들어가는지 의문**임. 그 도서관에 방문해서 수령했었음.

<최○○ 위원>

○ **(440, 아이 책 읽어주기, 책이랑 관련 놀이)** 개인적으로 7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어서 현장에 갔음. 여건을 보고 왔고, 인기가 많아서 학부모 사이에서 1분 안에 모든 예약이 마감이 된다고 함. 현장에서 주민분들 의견도 들었는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도 신청해서 돼본 적이 없다.” 등 사업에 대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왔고, **이 사업은 적절하다고 보였음**.

○ **(908, 태블릿, 노트북 대여사업)**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필요해서 빌려준다는 건데, **반납기 한 대 비용이 더 비쌈.** 실질적으로 **노트북, 태블릿을 더 많이 빌려주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담당자님이 계셨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임.